11 월 8 일 2026 년



감사와 새로운 부흥

예배 초청 .....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다함께

경배와 찬양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 유경주 집사

광고 .....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자

설교 .....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 1: 7) .....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 "주님께 순종하는 삶" ..... 다함께

축도 .....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9x: 510-732-1912 교회 홈피: hkb.church

지난주 설교 요약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창세기 5:21-24)

에녹은 아들 므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 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300 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었고 온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였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그 죄악된 세상,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왕이요 주님이 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세상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먼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욕심과 자아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과 싸우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16 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감정, 내 성격, 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덕이 되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고난이 전혀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편안한 길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2027 인선 & 예산 위원회**– 2027 인선 & 예산
   위원회로 섬겨 주실 분들입니다.
   < 김영란, 심영민, 이화선, 유영민, 조정욱>
3. **제직 수양회**– 11 월 7 일 제직 수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 **운영 위원회** – 오늘 오후에 운영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5. **추수감사예배** – 11 월 22 일 주일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행사 및 모임

11 월	운영 위원회	11 월 8 일 (주일)
11 월	추수 감사절	11 22 일 (주일)
11 월	각기관 월례회	11 29 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1/08	11/15	11/22	11/29
대표기도	유 경주	유 영민	이 강선	이 화선
헌화성도	정 병철	심 연순	정 명희	정 명희
봉사당번	소망구역	소망구역	사랑구역	각기관월례회

예배 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 경주	510-634-9374	정 주환 소망공동체)
	유 경애	925-719-3673	장 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 영민	415-205-2631	박 완주(헝가리집시)
	손 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김 영란	510-468-4720	김 정림 (탄자니아)
	한 영미	510-410-8718	조 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	12 주
성경 통독방	52 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신앙의 수준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 혹은 어떤 문제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근심, 더 나아가 수많은 감정 앞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솔직한 모습입니다. 두려움의 위험은 그 순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에 깊은 염려와 낙심, 혹은 미움이나 원망으로 번져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잠식하고, 하나님보다 눈앞의 문제를 더 크고 무겁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반대말을 용기, 담대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려워도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용기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용기와 믿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용기는 내 힘과 결심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스스로의 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선이요 마음입니다.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앎으로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작게 볼 때 자라나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자라납니다. 결국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자리를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 내가 두려움 속에 머무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시편 27:3 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도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앎이 그를 붙들었고, 두려움과 근심속에 절망한 것이 아닌 평강을 누리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찬양의 고백을 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Sunday Main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본당 *Main Sactuary*
어린이예배 *Sunday Children's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유치부실 *Children's Room*
영어예배 *Sunday English Service*	오후 1 시 *1:00 P.M.*	영어부예배실 *English Service Room*
주일성경공부 *Sunday School*	주일오후 12 시 *12:00 P.M.*	유년부실 *Group Class Roo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Meeting*	매일 화-토 6 시 *DailyT-Sat 6 a.m.*	본당 *Main Sactuary*
구역모임 *Local House Meeting*	매 월 *Monthly*	구역별 각가정 *Local church member's home*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Children's Ministry: Joy Song*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